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韓 집결 3000만원대 보급형 시장 공략

테슬라, 내년초 모델Q 출시 예정
BYD, '아토3' 등 저가모델 공세
현대차·기아, 라인업 확대 방침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싸고 가격 경쟁이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내년 초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테슬라도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 모델Q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와 기아가 올해 저가형 모델인 코나EV와 EV3를 출시한 가운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초 도이치방크와의 기업설명회(IR)에서 저가형 EV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모델Q' (가칭)라는 차종명으로 알려진 차량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소형 해치백인 차량은 전장(길이)이 4m가 안 되고,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Q 가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에도 실구매가가 3만7499달러(53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급형 '모델3'의 가장 낮은 가격인 4만4130달러(6320만원)보다도 6000달러 이상 저렴하다.

내년 초 국내 진출을 선언한 BYD는 현대차그룹의 안방 공략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내년 초 국내 출시 모델과 가격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형 전기 세단인 셀(SEAL), 소형 SUV인 아토3(ATTO3), 소형 해치백인 돌핀(DOLPHIN)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을 거친 데 이어 현재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절차가 끝나면 보조금과 국내 판매 가격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모델 중 가격이 저렴한 '아토3'

는 중국 현지서 3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2000만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차는 코나EV, EV3와 경쟁을 펼친다. 가격 면에서는 국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도 3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아토3가 앞선다.

현대차·기아는 저가형 라인업을 갖춘 만큼 내년에는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9, 아이오닉 6N,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아는 EV4와 EV5(내수), EV2(유럽) 등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BYD가 국내 동급 대비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로 공략한다면 현대차 기아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때까지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CES 2025에서 공감지능(AI)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In-Cab in sensing, 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모델이 콘셉트 차량에서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모습. /LG전자

LG전자, '운전자 공감 AI' 첫 선

미리보는 CES 2025

'인캐빈 센싱' 솔루션 체험공간 마련
차량 내부 감지·분석... 안전운행 지원

LG전자가 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한다.

LG전자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CES에서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완성차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공개 부스만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람객에게 AI로 달라질 미래 모빌리티 경험과 주행 트렌드를 선보이기 위해 LG전자 부스 내에 체험존을 꾸민다.

관람객은 전시장에 설치된 콘셉트 차량에 탑승해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게 된다. 관람객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AI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판단하고, 착용하지 않았거나 체결이 잘못됐다면 알람을 통해 올바르게 장착하도록 알려준다.

운전자 얼굴 표정을 인식해 기쁨, 보통, 짜증, 화남 등 내 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으로 표시해준다. 실시간으로 심박수도 측정해 숫자로 나타낸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

에도움이 된다.

운전석에 탑승한 관람객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한국, 스위스, 이탈리아 중 한 곳을 응시하면 운전자 시선을 감지, 해당 국가가 선택돼 주행이 시작된다.

LG전자 인캐빈 센싱 솔루션의 AI 기술은 운전자의 주행 편의 또한 돕는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표기돼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표지판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운전 중 운전자가 관심 갖게 본 랜드마크나 조형물 등을 센서가 자동 인식해 기억한다.

주행이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기억해 둔 장소나 조형물에 대해 설명해준다. 운전 중 졸음과 부주의한 행동 정도를 판단해 안전운행 점수도 알려준다.

인캐빈 센싱 솔루션은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교통사고도 예방한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과 운전자 및 차량 내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DIMS)은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 등을 세밀하게 감지해 분석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행동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내서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운전자와 공감하는 AI 기술을 적용한 인캐빈 센싱 솔루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오토에버, 인니 합작법인 '테라 링크 테크놀로지' 설립

동남아시아 고품질 차량용 지도 구축

현대오토에버가 인도의 맵마인디아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차량용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현대오토에버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합작법인 '테라 링크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합작법인은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 지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며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별로 통행방향, 노면표시 등 도로 환경의 차이가 있어 각 지역에 맞춘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이



16일(현지시간) 현대오토에버와 맵마인디아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김윤균 현대오토에버 사장(왼쪽)과 맵마인디아의 로한 베르마 CEO&ED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크다.

현대오토에버는 합작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6개국의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브루나이,

미얀마 등 인접 국가 지도까지 확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동남아시아 지역 지도의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솔루션은 내비게이션 지도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지도를 결합하며 차선정보, 노면표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다. 합작법인은 확보한 원도(原圖)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대상 지도 공급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부장 서동권 상무는 "고품질의 차량용 지도를 구축해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내비게이션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DJSI '월드지수' 편입

현대글로벌비스는 16일 2024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다.

DJSI는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중 최초로 월드 지수에 편입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 기준 운수 및 교통 인프라 부문 3위다.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평가를 진행한 것과 역량 향상 교육과정 신설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운용

대경선 적용... 첫 정규 영업 운행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구미역~경산역)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최초로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연구에 참가해 68개월 만인 2018년에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

이 없어 외국산 신호시스템에 의존해 온 만큼 국내 철도망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의 열차제어시스템의 규격을 충족해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 가능하다. 국내 철도망에 확대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K-철도신호'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신호체계 표준화로 보다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산 신호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속철도 인프라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아우디, '더 뉴 Q8' 부분변경 모델 판매

19일부터 판매... 4가지 트림

아우디 코리아가 4년 만에 대형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아우디 Q8'의 부분변경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판매에 나선다.

아우디 Q8은 아우디 SUV 라인업 Q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로 여유로운 공간과 실용적 기능성, 쿠페만의 스타일 리시한 디자인을 접목한 매력적인 차량이다.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싱글 프레임, 헤드-테일라이트, S 라인 외장 패키지, 22인치 휠 등을 기본 적용했다.

또 운전자 편의사양도 대거 추가했다. 블랙 헤드라잉, 앞좌석 전동-통



아우디 코리아가 4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선보인 대형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Q8'.

풍·마사지, 앞·뒷좌석 열선 기능을 포함한 발코나 가죽 S 스포츠 플러스 시트 등을 적용했다. 세련되면서도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Q8 부분변경 모델은 Q8 50 TDI 콰트로의 기본형과 프리미엄, Q8 55 TF SI 콰트로의 기본형과 프리미엄 등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양성운 기자